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3년도 표어 ⊗

생명의 성령이여 삶의 주인이 되소서 (롬14:17)

⊗ 행동지침 ⊗

- 1. 역사의 주권자를 보자
- 2. 임마누엘의 삶을 살자
- 3. 생명 살리기 운동에 동참하자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 (02)558-1106 팩스: (02) 558-2107 www. seoulchurch.or.kr

소선지서 강해
-아모스서-

드고아의 선지자

(아모스 1장 1 - 2절, 7장 10 - 17절)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아모스서는 소선지서 가운데서도 가장 감동적이며 많은 독자를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아모스서를 외면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모스서가 사회 부정과 불의를 맹렬하게 공격하고, 종교적 인습과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비판하기 때문입니다. 아모스서는 사회적 부정 가운데 특히 부의 오용, 억눌림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무관심과 사회의 제도적 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과 사회적 불의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벨엘에는 이미 정식 제사장인 아마샤가 있었으니 젊은 목동 아모스가 와서 말씀을 선포하는 모습이 그의 눈에 거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종교지도자인 아마샤는 자기 가 해야 할 일을 아모스가 하므로 질투가 나서 여로보암 왕에게 가서 아모스를 모함합니다. 첫째, 아모스가 여로보암 왕이 반드시 칼에 죽을 것이며 이스라엘은 사로잡혀 갈 것이라는 예언을 한다고 합니다(암 7:11). 아마샤가 왕에게 한 보고는 위증이며 모략

1. 부르심을 받은 아모스

“유다 왕 웃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이년에 드고아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1:1).

아모스는 어떤 의미에서 기록을 남긴 선지자(writing prophet) 중의 첫 번째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모스는 유다 웃시야 왕 때와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때 지진이 있기 2년 전, 주전 750년경에 당시 국가적으로 변명을 누리고 있는 북 이스라엘에 대해 회개를 재촉하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아모스는 드고아 목장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선지자 학교에 다닌 적도 없고 예언자로서 자격을 갖춘 인물은 아니었으나 대단히 도덕적이며 용기 있는 인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공식적인 직함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목장에서 양을 돌보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가난한 농부에 지나지 않는 아모스에게 하나님의 영이 감동을 주시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3대 인물로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보잘 것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으로 결코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어 이스라엘의 믿음의 아버지를 삼으셨습니다. 모세 역시 노예의 신분으로 태어나 쫓기는 신세로 살았으나 마침내 80세가 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의 대 영도자가 되었습니다. 다윗도 이세의 막내아들로 양이나 치는 목동에 불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목동이란 가장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이렇게 보잘 것 없는 다윗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어 성군 다윗이 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갈 2:6).

교회에서는 세상에서 유명하고 유력한 사람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력한 자들 가운데는 복음의 유익을 주는 이들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인간적으로 보잘 것 없는 사람들을 불러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잘 것 없는 아모스에게 환상을 주시므로 이스라엘에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2. 모함을 받은 아모스

“때에 벨엘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암 7:10).

뽕나무 치는 자요 목동에 불과한 아모스가 어떻게 선지자로서 말씀을 선포하느냐고 했지만 하나님은 벨엘에 가서 복음을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벨엘은 남왕국과 북왕국의 국경지대에 있는 도시로서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앞에서 제사를 지내는 곳이었습니다. 아모스는 벨엘에 가서 거짓 종교와 부도덕

하나님은 의로우시므로 당신의 백성들도 의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으로부터 음모를 당하고 오해를 당할지라도 끝까지 의로운 길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은 종교적 형식주의를 미워하십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이 아닌 반쪽만 바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토해버리실 것입니다.

입니다. 둘째, 아모스는 자기를 살찌우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다 땅으로 도망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예언하고 합니다(암 7:12). 이것은 너 자신을 위해 돈을 받고 예언한다는 말입니다. 아마샤는 아모스가 자기처럼 돈이나 받고 예언을 해주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아마샤처럼 종교적 직업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선포한 것뿐인데 아마샤는 아모스를 음해하였습니다.

셋째, 아모스는 권위에 대한 도전자라고 했습니다. “다시는 벨엘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암 7:13). 아마샤는 아모스에게 벨엘은 자기와 왕의 영역이니 이곳에서는 입을 다물라고 했습니다.

3. 보호받은 아모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와 네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네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네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였느니라”(17절).

아모스의 메시지를 거부한 아마샤는 결국 무서운 심판 아래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모략하고 중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며 알고 계십니다. 특히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주전 735년에 북왕국의 연합군 공격을 하였고, 733년에는 앗수르의 공격을 받게 되고, 721년에는 2만 7천명이 포로로 끌려가는 사건이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신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암 5:21-22). 하나님은 종교적 형식주의를 미워하십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이 아닌 반쪽만 바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토해버리실 것입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암 5:14-15).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구하시며 정의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서 선을 구하고 정의를 외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회

3월1일 오후 5시 웨스트민스터 홀

우리 교회는 노아의 홍수 심판의 시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시대와도 같은 지금을 당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 기독교인이, 특별히 이시대의 제사장 직을 감당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서울교회의 성도가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해야 할 때임을 직시하여 오는 3월1일, 1919년 이 민족의 독립을 위해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그날을 기도로 선포하여 우리교회 젊은이들의 모임인 대학부와 청년부가 주관이 되어 준비하게 되며 남선교회와 여전도회

가 후원을 하여 전교회적인 기도회로 준비된다.

이날 기도회에는 이동복 교수(전 남북조절 위원회 대변인, 남북고위급 회담 대표, 15대국회위원, 현 명지대 초빙 교수)의 '북한 핵문제와 한반도 정세'라는 제목의 특강도 준비된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로 모여 국가가 당면한 이 어려운 때를 기도로 극복하기 위한 미스바의 기도, 에스더와 다니엘의 기도의 시간이 되도록 기도한다.

2003년도 전반기 열린 프로그램 교과목 확정

교사양성반

- 시간: 주일 오후 3:20 - 4:30
- 장소: 603호
- 대상: 기존 교사 중 미수료자 및 희망자
- 서울교회 세례교인으로 교사로 봉사하기를 원하는 분

순번	일자(주일)	교과목	담당
1	4/6	교회교육의 목표	장재환 목사
2	4/13	성경개설(구약)	조대영 전도사
3	4/20	성경개설(신약)	이태훈 전도사
4	4/27	성경적 교회론	이성득 목사
5	5/4	가족예배에서 교사의 역할	오정식 목사
6	5/11	학생의 이해(발달심리)	한상은 목사
7	5/18	교수-학습방법론	김희정 전도사
8	5/25	교사의 자질	이규정 목사
9	6/1	효과적인 반목회	조대영 전도사
10	6/8	참된 예배	윤영국 목사

교구일꾼 양성반-LTC

- 시간: 4월6일 - 6월8일
- 시간: 주일 오후 3:20 - 4:30
- 장소: 606호
- 지도: 이용식 목사

순번	일자(주일)	교과목	담당
1	4/6	그림기도 인도	오정식 목사
2	4/13	디락방 모임의 실제	이성득 목사
3	4/20	성령의 은사 체크	서명철 목사
4	4/27	디락방과 교회봉사	윤영국 목사
5	5/4	디락방 전도대	이규정 목사
6	5/11	디락방 모임 시 집단 상담	이용식 목사
7	5/18	디락방장의 리더쉽	장재환 목사
8	5/25	디락방 성경공부 인도법	김운호 목사
9	6/1	이단연구	한상은 목사
10	6/8	디락방 운영방법	지혜영 전도사

제5학기 서울 주부대학

- 개강: 4월1일(화) 오전 10:00
- 장소: 602호
- 기간: 4월1일(화) - 6월 3일(화)
- *특별활동 - 영어교실(Short story), 꽃꽂이 교실, 종이 접기 교실

순번	일자(화)	교양강좌제목	강사
1	4/1	여성의 건강관리(골다공증)	김정숙 박사
2	4/8	상담(가정에서의 성폭력)	주원순 사모
3	4/15	문화탐방	전광영 집사
4	4/22	부모-자녀 대화법	이은옥 권사
5	4/29	부모의 자녀 학습지도	조혜경 박사
6	5/6	인터넷 1	김시환 집사
7	5/13	인터넷 2	김시환 집사
8	5/20	아인 수련회	
9	5/27	한방과 여성건강	김영주 원장
10	6/3	영양관리	나미용 집사

제6학기 삼일 경로대학

- 개강: 4월3일 오전 10:30
- 기간: 4월3일(목) - 6월 5일(목)
- 장소: 1층 웨스트민스터 홀
- *특별활동: 성경교실, 컴퓨터 교실, 고전무용 교실

순번	일자(목)	교양강좌제목	강사
1	4/3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이용식 목사
2	4/10	아름다운 노후생활	유경 선생
3	4/17	건강 레크레이션	서석정 교장
4	4/24	생활원예	이재원 집사
5	5/1	한방과 노인 건강	김재안 원장
6	5/8	한마음 체육대회	
7	5/15	기독교 유적 답사	이만열 교수
8	5/22	나의 하나님	김진호집사/강정옥 권사
9	5/29	영화상영	비디오
10	6/5	창조질서와 생명의 존엄	김영한 교수

고등부 다니엘 새벽기도회 시작 2월24일(월) - 3월1일(토) 1주일간

우리교회 고등부는 개학 전 1주일동안 '다니엘 새벽기도회'를 진행한다. 모든 고등부 학생들과 교사, 학부모들이 24일(월)부터 3월1일(토)까지 매일 오전 5시 30분 새벽기도회에 참석하여 다니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던 것과 같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신학기 시작전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혜를 구하며 특히 올해 대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의 신앙과 학업을 위해 기도하고자 한다. 고등부 학생들은 물론이고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또 이 기간 중 2월28일(금) 저녁 9시 금요기도회부터 3월1일(토) 새벽기도회 시간까지 1일 수련회가 진행된다.

제 12회 KIMCHI 세미나 조직 -청교도 신앙세미나-

- 위원장: 오정수 장로
- 기획: 부장-김세재
- 차장-오광환, 인대진
- 위원-송인권, 김복승, 차도훈
- 안내 의전: 부장-성준경
- 차장-우지원, 양준경
- 위원-예배위원
- 시설: 부장-민순구
- 차장-조철기, 유관모
- 위원-이계홍, 이동만, 이찬호, 이인근
- 봉사: 부장-이영희(6)
- 차장-김정희, 이영희
- 위원-권사회
- 홍보: 부장-노승성
- 차장-장영일, 김시환
- 위원-서춘식, 정동호, 여 숙, 김민철
- 재정: 부장-임훈구
- 차장-신용식, 장두현
- 위원-오병철, 탁경준, 오승민, 이진구

반갑습니다

최창수, 김정자 집사님 가정 (1교구)

올 1월 첫 주에 등록하고 새가족부에서 5주째 교육을 받고 있는 최창수 김정자 집사님 가정을 소개 한다.

최창수 집사님 가정은 줄곧 대전에서 살다가 2년 반 전에 서울로 삶의 터전을 옮기고 작년 말 대치동으로 이사와와 마침내 오랫동안 사모하던 서울교회에 등록하게 되었다.

그간 대전 영락교회를 섬기신 최창수 집사님은 그곳 목사님의 추천을 받고 서울교회를 오게 되었다. 이종윤 목사님은 방송을 통해 익히 알고 있었으나 막상 뵈고 보니 자상한 아버지의 모습이었고 또 완벽한 성경중심의 설교로 인해 30년 가까운 신앙생활이 요즘 들어 날이 새롭다. 혹시나 한 번쯤은 세상 얘기를 하시겠거니 했지만 단 한 번도 성경을 벗어나지 않으시는 목사님의 말씀은 말 그대로

꿀송이처럼 달다.

그리고 또 하나, 새가족부의 체계있는 교육과 교사들의 섬세한 배려에 감사한다. 대전을 떠나며 가장 힘들었던 것이 그쪽 형제들과의 이별이었는데 새가족부에서 베풀어주시는 여러 분들의 사랑으로 서울교회의 형제들이 오랜 가족처럼 느껴진다.

최창수 집사님은 자동차와 중장비 기계를 수출하는 (주)광진 엔터프라이즈를 경영하고 있다. 직업상 해외 출장이 잦은 최 집사님은 해외의 선교사님들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있다. 그래서 서울교회 선교부에서 무언가 자신이 할 일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사진 속의 두 딸 미리내와 온누리. 특히 온누리는 첫째와는 11년 차이가 나는 늦둥이. 결혼 후 순탄했던 생활이 온누리가 막 태어나고 나서 사업적으로 심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최창수 집사님 가정. 기도조차도 할 수 없어서 통곡과 절규로 몸부림쳤던 이들 부부에게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그때 가르쳐주셨다고 한다.

최창수 집사님은 이제 8주의 새가족 교육을 마치고 나면 어떻게 교회를 섬길까 묵하고 고민 중이다.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으신 분들을 생각하면 자신은 교회 청소하는 일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지난날의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이곳 서울교회에서 새롭게 펼치리라고 한다.

허숙(편집부)



복음의 황무지, The Kingdom of Cambodia

김운호 목사 (제3가 단기선교팀 담양교역자)



동남아시아 인도차이나 반도에 위치한 캄보디아는 북서쪽으로 태국, 북쪽으로 라오스, 동쪽으로 베트남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타이랜드만에 접해 있는 해양국이다. 남한의 1.8배에 해당하는 면적에 인구는 1,100~1,200만 정도, 기후는 열대몬순에 속하며 연중 고온다습한 편이다. (우기: 5~10월, 건기: 11~4월). 수도는 프놈펜, 공용어는 국민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크메르족의 언어인 크메리어이며, 한국보다 2시간 느리다.

정치체제는 입헌군주제로, 현재 국가원수는 시아누크 국왕이며, 실권자인 수상은 훈센이다. 캄보디아는 소승불교를 국교로 지정, 국민 대다수가 정령승배와 불교에 심취해 있다. 오랜 전쟁과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한 사회혼란으로 국내에는 영화 킬링필드(Killing Fields)로 그 참혹한 격동의 현대사가 소개된 바 있다.

기원 직후부터 거주해 온 것으로 추정되는 크메르족은 한때 동남아 최대의 왕국이었던 앙코르제국을 건설하고 캄보디아의 국가적 상징으로 널리 알려진, <앙코르와트 사원>을 짓기도 했으나, 외세의 개입과 잦은 내란으로 점철된 근 현대를 거쳐 오며 52%에 달하는 문맹률과 낮은 교육수준, 열악한 사회 간접자본, 정치적 불안정, 정부 관리들의 부패 등 파탄에 이른 국가경제와 낙후된 생활수준으로 고통 받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크메르 루즈, 베트남이 물고 물린 끝없는 전쟁이 30년 동안이나 계속되면서 캄보디아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의 하나로 전락했으며, 1998년 실시된 국민투표로 수립된 연립정부에 의해 가

다양한 불교계와 축제를 열고, 일상의 소소한 습관에도 정령승배의 관습이 깊숙이 배어있다.

프랑스 식민지였던 영향으로 일부 지식층은 기독교를 믿고 있으나 크메르족이 기독교를 서구의 종교로 인식하고 배척하는 풍도가 워낙 팽배하여 현재 각국의 선교 단체, 교회 등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황무지나 다름없다. 1997년에 들어서야 한 한국 선교사가 비행기 사고로 순교한 이후, 십자가를 세울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후로 기독교에 대하여 개방적인 물꼬가 점차 트이고 있는 중이다. 1954년에 성경전체가 크메리어로 번역되었다.

크메르인들은 부부가 거의 서로를 신뢰하지 않으며, 아이들은 부모를 존경하지 않는다. 실제로 고아와 과부가 많으며, 오랫동안 심어진 불신과 불안, 두려움이 뿌리 깊어 복음의 단비가 시급하다.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타민족에 대한 배타심이 강하고, "Amok"으로 표현되는 급변하는 성미가 있어 현지인을 비하하거나 구박하는 행동을 하면 강한 분노를 드러내기도 하는 크메르인들은 복음의 이방에서 오래 신음해 왔다. 그들에게 어서 복음이 전해지길!

가스로 정치적 안정을 되찾았으나 아직까지는 사회 전반이 전쟁의 후유증을 앓고 있다.

동남아 여타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국교가 불교로 지정되어 있지만, 그 문화의 뿌리는 힌두이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대부분의 크메르인들은 <네악 타 Neak Taa>라는 초자연적인 존재와 두려움의 대상인 <카뮈 Kamuit>라는 귀신, 집 귀신인 <옵니엔 티 Omnieng tea>의 실존을 믿고

있다. 다양한 불교계와 축제를 열고, 일상의 소소한 습관에도 정령승배의 관습이 깊숙이 배어있다.

프랑스 식민지였던 영향으로 일부 지식층은 기독교를 믿고 있으나 크메르족이 기독교를 서구의 종교로 인식하고 배척하는 풍도가 워낙 팽배하여 현재 각국의 선교 단체, 교회 등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황무지나 다름없다. 1997년에 들어서야 한 한국 선교사가 비행기 사고로 순교한 이후, 십자가를 세울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후로 기독교에 대하여 개방적인 물꼬가 점차 트이고 있는 중이다. 1954년에 성경전체가 크메리어로 번역되었다.

크메르인들은 부부가 거의 서로를 신뢰하지 않으며, 아이들은 부모를 존경하지 않는다. 실제로 고아와 과부가 많으며, 오랫동안 심어진 불신과 불안, 두려움이 뿌리 깊어 복음의 단비가 시급하다.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타민족에 대한 배타심이 강하고, "Amok"으로 표현되는 급변하는 성미가 있어 현지인을 비하하거나 구박하는 행동을 하면 강한 분노를 드러내기도 하는 크메르인들은 복음의 이방에서 오래 신음해 왔다. 그들에게 어서 복음이 전해지길!

새로운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도훈(성남부)

서울교회에 1월 12일 등록했습니다. 새가족부를 통하여 서울교회의 예배시간, 교육, 모임 등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고, 그 중 제가 속할 청년부 주일 모임과 토요 모임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등록한 그 주, 이태훈 전도사님의 인도로 토요 모임을 통해 서울교회 청년부에 첫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매주 예배를 드리고 청년부 모임에 참석하면서 새로운 형제, 자매들을 알게 되었고, 청년부 모임의 면면들을 조금씩 배웠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곧 수련회가 준비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수련회를 통하여 느낀 점을 적어 봅니다. 저는 수련회를 미처 준비하지 못하고 참석하게 되어 '내가 이 수련회로 어떤걸 알 수 있을까?' 라는 의문으로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수련회에 참석하여 어떤 걸 알 수 있을까 막연했던 의문은 하나님을 알고부터 지금까지 마음속에 담아 두었던 모든 의문들까지도 생각나게 하였습니다.

중학시절 처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는 친구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그 걸모습을 따라 하는 것이 전부였고,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로 접어들었으며, 나중에는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 한 주 동안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예배시간을 겨우 때우는 생활로 이어졌다가, 결국에는 몇 달에 한번씩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은 이미 흐트러지고 믿음은 점점 얼어졌으며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까지도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청년부 수련회는 제게 보이지 않던 의문의 실마리들을 한꺼번에 보여주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청년부 형제, 자매들과 함께 예배하고 어린아이처럼 뛰놀며 교제의 시간들을 가지면서 그 자체로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고, 강도 높은 설교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체이시고 나와 맹목적인 주종관계가 아닌 자유의지에 의해 하나님을 따르게 하셨으며, 준비되지 못하여 갈등하는 것조차도 다 알고 기다리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신 뜻과 남자, 여자를 구분하시고 역할을 맡기신 섭리를 배웠고, 나와 함께할 배우자의 모습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저를 지켜보시고 그대로 머무르도록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믿음이 잘못된 길로 흘러가지 않도록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신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만남과 아름다운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신앙생활을 하도록 항상 기도하며 생활할 결심을 주신 것과 다시 한번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는 헌신하고 있는가? ...손재영(고등부 교사)

오늘 신앙예배를 교사 헌신예배로 드린다

실업계 기독교 학교의 임시교사로 1년을 지냈었다. 매스컴에서는 한참 실업계학교의 '교실붕괴현상'을 지적하고 있었고, 언제나 그랬듯이 누구나 10대들의 타락한 문화를 안타까워하고 있었다. 1년이라는 제한된 시간동안 일을 했으면 얼마나 했을까마는 그래도 그 시간을 통해 내게 남은 몇 가지 소중한 깨달음이 있다.

첫째는 처음에 가졌던 부담과 두려움이 '얼마나 근거 없는 편견에 근거한 기우였나' 하는 것이다. 아이들과 함께 했던 시간속에서 내가 얻었던 많은 유익은 여전히 나를 성장시키시는 주님의 손길이었다.

둘째는 실제로 매스컴이 그렇게 떠들어대듯이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엄밀히 말해 교육의 문제는 학생들의 문제가 아니었다. 안타깝지만, 그 책임은 교사에게 있었다.

'교회학교의 교사는 6일 동안 세상에서 일하다가 결코 포기하고 싶지 않은 주일 오전 시간의 여유를 반납해야 하며, 가끔씩은 토요일 오후의 시간을 포기해야 한다. 비교적 나이가 젊은 교사가 교회 학교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위아래로 요구되는 사역의 짐을 아무 말없이 묵묵히 감당해야 한다', 이것은 교회학교의 교사를 시작하기 전에 내 눈과 귀에 들었던 염려 섞인 생각들이다. 사람 앞에 나서서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것은 여전히 부담스럽고 힘이 드는 일이다. 이런 저런 모습을 생각할 때 누가 자신 있게 이 일을 하

겠다고 나설 수 있겠는가? 누군가를 가르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것뿐이고, 심지어 한심해 보이기도 하는 나 자신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이런 불신 섞인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또한 이런 상황으로 인도하시는 것도 주님을 향한 나의 성장과정임을 알고 있다. 믿음으로 이길 수만 있다면, 그 때보다도 많은 감사의 제목과 깨달음을 주시리라.

'6일간의 세상의 조류와 각박한 경쟁심리가 아이들의 마음과 영혼을 얼마나 유린했는지, 혹시 이 아이들의 예민한 감정이 상처 받지 않았는지...' 구대여 이런 심각한 추측을 하지 않더라도 지난 삶의 한 모퉁이에서 겪었던 한 순간의 외로움과 상처가 이 아이들 중 누군가에게 재현된다는 것이 못내 싫어서라도 난 아이들과 함께 해야겠다.

나의 '솔직한 변명' 속에는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연약함'과 '기만'이 있다. 조금 더 솔직해진다면 주님은 나의 이 어설픈 솔직함 속에 있는 '게으름'과 '이기심'을 지적하신다. '게으름'과 '이기심'이 드러난 자리에서 주님은 교회학교의 아이들과 함께 나를 기다리신다. 주님은 그곳에서 복음의 꽃을 피우실 것이다. 결국 주님은 나를 성숙시키실 것이고, 결국 나는 많은 감사의 제목을 갖게 될 것이다. 내가 자아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 솔직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다면, 먼저 수고한 이의 충성스러운 모습, 신실한 교사의 모습으로 주님은 이들의 영혼에 다가가셔서 주님의 일을 행하실 것이다.

지금 미스바로 모이자

오정식 목사(3, 4교구, 고등부 지도)

지난 2월 18일 오전 상상을 초월하는 또 다른 재난이 전국을 강타했다. 대구 지하철 중앙로 역에서 한 사람의 방화로 전동차 12량이 전소되고 백 수십 명의 승객이 사망하였고 수많은 부상자와 실종자를 낸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연일 매스컴들은 이번 참사에 대한 나름의 분석과 수사결과를 앞 다퉈서 내놓고 있다. '자신의 처지를 비판한 한 사람의 우발범죄다',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인재다', '인간소외의 문제다' 심지어는 우리나라 소방시스템에 대한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대구지하철 방화 참사는 자신의 처지를 비판한 한 장애인인 어이없는 범죄도,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인재(人災)도 아니다. 이번 참사는 '풍전등화(風前燈火)'와 같은 나라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일확천금의 허황된 꿈을 가지고 복권 열풍에 몸살을 앓고 있는 대한민국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다.

지난 2월 12일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북한의 핵 안전조치협정 위반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기로 결의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과 북한은 서로에 대한 발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북한은 전 세계에서 미국을 공격할 준비가 되었다고 말하고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대응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일확천금을 꿈꾸며 복권열풍에 온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다. 월 130만원을 받는다는 한 직장인은 지난 10회 로또에 3000만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결과는 3등. 당첨금은 85만6천원이었다.

지금 우리나라는 노아 시대와 같다. 이 땅의 백성들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같다.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경고한 노아에게 돌아온 것은 손가락질과 조롱이었다. 방주의 문이 닫히기 전까지 그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 불과 유희의 심판을 앞둔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의 사위들과 마찬가지로였다. 롯의 심판 경고에 대해 그들은 그 경고를 '농담'으로 여겼다.



새벽기도로 모인 서울교회 성도들

북한 핵문제가 심각하다. 한반도가 위기상황이다. 주한 미군 문제가 심각치 않다. 그러나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북한이 뭐 하루 이틀 그랬나? 뭐 어떻게 어떻게 되겠지? 설마 전쟁이 일어나겠느냐? 나는 그저 6자리만 맞으면 된다.' 결국 이러한 안일함과 불감증이 대형 참사를 낳게 된 것이다.

지금의 위기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책임이다. 믿노라 하면서도 믿지 않는 저들과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았고, 무엇보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한 것이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시편 127편 1절은 분명하게 대답한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안전과 평화를 도모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게 되었을 때에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이 찾아오게 된 것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위기를 북한 핵문제에 의한 위기라고 이야기한다. 어떤 사람은 복권열풍에 정신을 못 차리는 국민의식의 위기라고 이야기하고 대구지

하철참사 이후에는 안전 불감증과 재난대처능력에 대한 이야기가 분분하다.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았을 때 지금의 위기는 기도의 위기다.

사무엘은 위기의 때에 온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모았다. 그리고 그 곳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부르짖어 기도했다. 절망과 위기의 상황에서 온 백성을 한 자리에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다. 왜 그랬는가? 지금의 위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와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므로 지금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할 때다. 우리의 기도만이 전운이 감돌고 있는 이 나라를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건져낼 수 있다. 우리의 기도만이 대형참사로 큰 슬픔을 당한 유족들과 국민들을 위로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죄악에 대한 회개의 기도가 필요하다. 지금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 자리까지 온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죄악을 회개해야 한다. 또 우리 사회에 소외된 이웃을 향해 섬김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철저히 회개해야 한다.

우리 모두 미스바로 모이자! 기도하는 민족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3월1일(토) 오후5시 서울교회로 모여 나라를 위해 기도하자!

동정

- 이종운 목사는 27일(목) 한국 로잔위원회임원회를, 28일(금) 주기도문·사도신경 제번역 공청회를 각각 소집한다.
- 전제원 집사(1교구) 주 베푸머 대한민국 영사로 부임
- 이사: 서교하 성도(7교구) 고양시 덕양구 관상동 910-32 031-969-8896
· 홍현규, 모양순 집사(3교구) 서초구 양재동 329-1 뉴아트빌라 301호
- 개업: 홍현규, 모양순 집사(3교구) 명동 칼국수(점프 밀라노 강남점) 6440-5747
- 금주의 식사: 손희창성도 · 이신정 권사

신혼 가정부 특강: 오늘 오후 3시 30분 706호에서 '환절기의 건강관리' 라는 주제로 특강이 열린다. 강사로 인인호 집사(안 이비인후과 원장)이며 성도 어느 누구나 환영한다.

교육1국 겨울 성경학교 시작

24, 25일 양일간 교회에서

우리교회 교육1국 유치, 유년, 초등부 어린이들의 겨울성경학교가 내일(24일, 월)과 모레(25일, 화) 이틀간 교회에서 시작된다. 금년 교육1국 겨울성경학교 주제는 유치부-"우리는 이렇게 예배해요", 유년부-"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 예배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초등부-"우리는 이렇게 예배해요"로 정해 어린이들이 금년 성경학교에서는 올바른 예배에 대해 배우게 되며 개회예배는 24일(월) 오전 10시 30분에 1층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유치부부터 초등부까지 모두가 함께 모이고 이종운 목사가 말씀을 전한다. 또한 특별히 금년 교육1국 겨울성경학교에는 지난해 여름 농촌 전도봉사활동을 다녀왔던 충남 예산의 목양교회의 어린이들 17명과 인술교사 1명이 서울교회의 겨울성경학교에 참석할 예정이다. 많은 어린이들이 참석하여 은혜 받고 올바른 예배를 배워 바르게 성장하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한다. 25일(화) 겨울성경학교가 끝나고 난 후 801호 만나 홀에서는 필그림 유소년 축구단 발대식이 있을 예정이다.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개인, 가정, 교회되도록
2. 겨울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해 받은 은혜 잘 활용하도록
3. 병상에 있는 환자들, 입시생, 실직자,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4. 북한의 핵 문제 평화롭게 해결되도록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역도 :

